Nursing and Health Issues
Vol. 25, No. 2, 92-101, August 2020
pISSN 2586-5013
eISSN 2636-0926
https://doi.org/10.33527/nhi2020.25.2.9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정민영, 이라진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Influence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in Nursing Students

Joung, Min-Young · Lee, La-Ji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Changwon, Korea

Purpose: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the effect of this relationship on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219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four university located in two provinces of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3.0. **Results:** Participants' scores for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were 3.72±0.63, 3.77±0.46, 3.63±0.41 and 1.31±0.39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score for self-Esteem (r=−.22,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r=−.18, p=.008),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18, p=.008), the lower the score for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was gender (β=−.29, p<.001) followed by self-esteem (β=−.18, p=.022) in that order. These factors explained 13.5% of total varianc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F=9.53, p<.001). **Conclusion:** It appear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al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n order to improv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reduc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Key Words: Nursing students, Self 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thinking, Dating violen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교재 중이거나 결별한 미혼 남녀 사이에 여러 형태의 폭력이 발생되어 데이트폭력은 사회적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나날이 흉폭해지고 발생 건수 또한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하여 폭력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심각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1]. Makepeace [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쌍 중 1쌍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주요어: 간호학생,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비판적 사고, 데이트폭력

Received Jul 9, 2020 **Revised** Aug 13, 2020 **Accepted** Aug 20, 2020

Corresponding author: Lee, La-Jin,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2640 Hamma-daero, Naeseo-eup, Masanhoewon-gu, Changwon 51217, Korea. Tel: +82-55-230-1189, Fax: +82-55-230-1441, E-mail: leelajin@masan.ac.kr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Masan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경험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강한 심리적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대학생들이 데이트할 때 한 차례 이상의 폭력 피해 경험은 60.9%였으며, 이중 심리적 폭력 피해는 53%, 신체적 폭력 피해는 38.2%, 성적 폭력 피해는 7.3%로 나타나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3].

데이트폭력은 서로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둘 중 한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으로, 그 유형에는 언어적 협박, 위협, 신체적 폭행으로 매우 다양하다[1]. 이러한 데이트폭력이 피해자들에게 우울, 불안, 신체 문제가 야기하고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저하시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은 대부분 은밀하고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심각한 단계로 이르기까지 폭력으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4].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성숙한 성인기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데이트폭력에 관한 문제 인식과 예방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데이트폭력 허용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로, 이성교제 중 폭력에 대해 얼마나 관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폭력이라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5]. 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우 데이트폭력 허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데이트폭력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된다[4]. 선행연구에 의하면, Riggs와 O'Leary [6]는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인식 수준이 낮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허용하고 정당화하는 경향도 높아,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 언어와 행등으로 폭력 허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성관계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허용적인 대학생일수록 폭력 경험이 많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폭력허용이 높게 나타났다[4]. 또한,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은 성별과 데이트 상대 유무[7], 이성교제 경험 및 종교[8]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만족도는 데이트 폭력 가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므로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은 대인관계나 대학생활 적응, 학업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기존중의 정도를 의미하며[10],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특성을 말한다[11].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성은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허용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다[12,13].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14].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능력은 두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능력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특히, 대학생 시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개발하는 시기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겪기도 한다[16]. 그리하여 미숙한 대인관계능력을 가진 여대생들은 이성교제 시 '폭력적인 이성 친구라도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데이트폭력을 수용하는 성향이 높았다. 또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5배나 높아[17], 대인관계능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업무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자기조절적인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고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의미한다[18]. 간호현장에서 비판적 사고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 사고로 여겨지고, 간호교육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통합교육과정이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19]. 그리고, 영국에서는 '성과 관계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능력 배양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20]. 이렇듯, 비판적 사고성향과 같이 자기조절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의사결정은 간호대학생의 성과 관련된 교육과 연계해 데이트폭력 허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일선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맡게 되므로 다른 전공 학생들과 비교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환자, 보호자, 동료 의료인과의 관계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는 여러 가지 폭력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사고 성향이 폭력상황 대처 및 문제를 해결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허용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 비판

적 사고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의 교육과정 속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정도를 감소시켜 데이트 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정도를 확인하고,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데이트폭력 허용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데이트폭력 허용정도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과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중간), 검정력 .95, 예측변수 13개(성별, 연령, 학년, 종교, 용돈, 학과만족도, 교제 경험, 교제 기간, 교제 대상의 직업, 데이트폭력 허용정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수는 189명이었다. 탈락률을 약 20% 고려하여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21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데이트폭력 허용정도

이성 교제 간 폭력 허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 [21]의 폭력 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를 Nam [7]이 수정・보완한 것을 본 연구 의도에 맞게 문항 끝에 '~한다면 상대의 폭력을 허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연구 참여자들이 8가지 상황에서 연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하도록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정당하지 않다'에서 '매우 정당하다'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허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Foo와 Margolin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로 나타났고, Nam [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 [10]가 개발한 자아존중감(Self-esteem)도구를 Jon [22]에 의해 번역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Rosenberg [10]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곧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척도의 구성은 긍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Rosenberg [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고, Jon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3)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uerney [23]가 개발한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Chang [15]이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6개 하위영역 총 18개의 문항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Chang [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4)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Yoon [1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7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영역은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9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B광역시와 경남에 위치한 4개 대학의 간호학과의 승인을 받아 간호학과 공공게시판에 모집공고를 하였고, 연구원에게 찾아와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연구원이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간호학과 본관 1층 로비에서 설문지 배부 시 개별 제출용 봉투를 주어 직접 봉인하여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5.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K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승인번호 1040460-A-2019-040)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분으로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지 배부 시 개별 제출용 봉투를 주어 직접 봉인하여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실의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이후 즉시 파쇄 처리하여 폐기할 것이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의 차이검정은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데이트폭력 허용정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고, 연구대상자의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데이트폭력 허용정도

연구대상자는 총 219명이며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2.47세였다. 여성이 8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학년은 2학년이 32.4%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이 30.1%, 3학년이 21.5%, 1학년이 16.0% 순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68.9%였으며, 용돈은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가 77.6%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9.8%, '보통' 42.9%, '불만족' 7.3% 였으며, 데이트 경험이 있다가 85.8%로 나타났다. 교제 기간은 1년 미만이 63%,로 가장 많았고, 교재 대상자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71.7%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허용정도는 성별(t=3.20, p=.003)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t=2.75, p=.044), 대인관계 능력(t=4.15, p=.007), 비판적 사고성향(t=7.92, p< .001)은 2학년보다 4학년이 높았다.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으며(t=7.43, p=.001), 대인관계 능력(t=7.43, p=.001)과 비판적 사고성향(t=6.20, p=.002)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보다 만족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데이트폭력 허용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3.72±0.63점이었다. 대인관계 능력 점수는 평균 3.77±0.46점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하위영역은 이해성 3.94±0.63점이었으며, 다음은 친근

Table 1.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9)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M±SD		M±SD	F/t	*p*	M±SD	F/t	*p*	M±SD	F/t	*p*	M±SD	F/t	*p*
Age (yr)		22.47±4.10													
Gender	Male	30	13.7	3.80±0.71	0.72	.470	3.77±0.59	−0.01	1.00	3.75±0.58	1.26	.218	1.60±0.56	3.20	.003
	Female	189	86.3	3.71±0.62			3.77±0.44			3.61±0.37			1.27±0.34		
Year in university	1st a	35	16.0	3.71±0.75	2.748	.044	3.81±0.40	4.15	.007	3.70±0.47	3.73	.012	1.35±0.34	1.24	.296
	2nd b	71	32.4	3.59±0.53	b<d		3.65±0.44	b<d		3.50±0.36	b<d		1.37±0.43		
	3rd c	47	21.5	3.69±0.70			3.74±0.53			3.67±0.45			1.29±0.43		
	4th d	66	30.1	3.89±0.59			3.91±0.41			3.70±0.38			1.25±0.33		
				3.72±0.63			3.77±0.46			3.63±0.41			1.31±0.39		
Religion	Yes	68	31.1	3.75±0.67	0.56	.578	3.73±0.49	−0.98	.328	3.66±0.44	0.78	.435	1.31±0.40	−0.12	.906
	No	151	68.9	3.70±0.62			3.80±0.39			3.62±0.40			1.31±0.39		
Monthly allowance	Yes	170	77.6	3.73±0.64	0.62	.538	3.78±0.46	0.22	.824	3.65±0.42	1.22	.224	1.29±0.38	−1.24	.218
	No	49	22.4	3.67±0.61			3.76±0.45			3.57±0.40			1.37±0.4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Unsatisfaction[a]	16	7.3	3.38±0.77	7.43	.001	3.73±0.58	7.92	<.001	3.63±0.56	6.20	.002	1.28±0.40	0.30	.738
	Moderate[b]	94	42.9	3.60±0.62	a<b<c		3.65±0.04	b<c		3.52±0.38	b<c		1.34±0.41		
	Satisfaction[c]	109	49.8	3.87±0.59			3.89±0.04			3.72±0.40			1.30±0.39		
				3.72±0.63			3.77±0.03			3.62±0.41			1.31±0.39		
Experience of dating	Yes	187	85.8	3.74±0.63	1.30	.196	3.80±0.46	1.12	.264	3.61±0.41	−1.45	.15	1.31±0.40	−0.01	.989
	No	32	14.2	3.58±0.64			3.69±0.47			3.73±0.44			1.31±0.36		
Duration of relationship (yr)	<1	138	63.0	3.68±0.64	0.78	.458	3.76±0.46	1.76	.175	3.61±0.41	0.59	.550	1.30±0.38	0.54	.585
	1~3	67	30.6	3.79±0.63			3.84±0.42			3.66±0.42			1.35±0.42		
	3<	14	6.4	3.78±0.59			3.59±0.54			3.70±0.42			1.25±0.41		
				3.72±0.63			3.77±0.46			3.63±0.41			1.31±0.39		
Boyfriend and girlfriend jobs	Yes	62	28.3	3.83±0.63	1.60	.111	3.72±0.50	−1.14	.255	3.65±0.41	0.40	.689	1.30±0.38	−0.17	.864
	No	157	71.7	3.68±0.64			3.80±0.44			3.62±0.41			1.31±0.40		

감 3.86±0.65점, 민감성 3.81±0.71점, 의사소통 3.79±0.72점, 신뢰감 3.70±0.60점, 개방성 3.63±0.57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는 평균 3.63±0.41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하위영역은 객관성 4.01±0.45점이었으며, 다음은 지적공정성 3.95±0.47점, 회의성 3.60±0.58점, 자신감 3.59±0.57점, 지적열정 3.49±0.69점, 신중성 3.46±0.70점, 체계성 3.39±0.67점 순이었다. 데이트폭력 허용정도 점수는 평균 1.31±0.39 (4점 만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s of betwee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N=219)

Variables	M±SD	Min	Max
Self-esteem	3.72±0.63	2.00	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3.77±0.46	2.50	5.00
Communication	3.79±0.72	1.67	5.00
Trust	3.70±0.60	1.67	5.00
Intimacy	3.86±0.65	2.00	5.00
Sensitivity	3.81±0.71	1.50	5.00
Openness	3.63±0.57	2.00	5.00
Understanding	3.94±0.63	1.67	5.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63±0.41	2.74	5.00
Intellectual eagerness/duriosity	3.49±0.69	1.00	5.00
Prudence	3.46±0.70	1.50	5.00
Self-confidence	3.59±0.57	1.50	5.00
Systematicity	3.39±0.67	1.00	5.00
Intellectual fairness	3.95±0.47	2.25	5.00
Healthy skepticism	3.60±0.58	1.75	5.00
Objectivity	4.01±0.45	3.00	5.00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1.31±0.39	1.00	2.88

3.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데이트폭력 허용정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데이트폭력 허용정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데이트폭력 허용정도는 자아존중감(r=−.22, p=.001), 대인관계 능력(r=−.18, p=.008), 비판적 사고성향(r=−.14, p=.034)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허용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과 함께 단변량 분석에서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성별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오차항의 등분산성, 정규성과 독립성을 검정하였다. Cook's Distance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 이상은 없었다. 잔차분석을 위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대한 회귀표준화 잔차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N=219)

Variable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r (p)	r (p)	r (p)	r (p)
Self-esteem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59 (<.001)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5 (<.001)	.57 (<.001)	1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22 (<.001)	−.18 (.008)	−.14 (.034)	1

Table 4. Affected Factors of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N=219)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77	0.28		9.78	<.001
Gender[1] (Ref.: female)	−0.36	0.07	−.32	−4.99	<.001
Self-esteem	−0.11	0.05	−.18	−2.31	.022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2	0.07	−.02	−0.25	.79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08	0.07	−.09	−1.08	.280
F=9.53, Adj. R^2=.135, p<.001					

[1]Dummy variable: Gender.
Ref.=references.

의 정규 p-p도표와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선형성을 보였고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오차항의 등분산성이 만족되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1.60으로 오차간의 자기상관성은 없었다. 참고로 Durbin-Watson 통계랑이 2에 가까우면 자기상관성이 없다(uncorrelated)고 본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53~0.9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1.02~1.90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성별(β=−.32, p<.001), 자아존중감(β=−.18, p=.022)이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약 13.5%였으며(F=9.53, p<.001), 성별이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과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허용정도는 성별(t=3.20, p=.003)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이 1.27±0.34점으로, 남성의 1.60±0.56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폭력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Riggs와 O'Leary [6], Ha와 Seo [2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최근 들어 남학생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관련 교육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72±0.63점으로, Chung [25]의 연구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간호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Chung [2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모든 사회조직에서 관계 형성의 기본적 토대로, 예비 간호사로서 임상 업무를 수행할 때 다양한 문제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상자와의 관계, 동료 학생과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Kim [26]의 연구결과 두 독립변수가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데이트 폭력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살펴보면, 평균 3.77±0.46점으로 Chung [25]의 연구결과 3.7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인관계 능력 점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이해성이 가장 높았으며 친근감, 민감성, 의사소통, 신뢰감, 개방성 순이었다. 신뢰감, 개방성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오늘날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함양되는 것으로, 자기 이해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25]. 또한, 대인관계 갈등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편견을 매개하여 데이트폭력을 야기시키는 선행연구 결과[27]를 보면,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갈등해결 및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기술 등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대상자를 신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인관계를 하고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평균은 3.63±0.41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hin과 Cho [28]의 3.37점보다 높은 점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 결과로 여겨진다. 하위영역 중에는 객관성이 가장 높았고, 체계성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이후 국가고사를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생각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교수방법 보다는 교과서 중심의 지식전달을 우선시 하는 교육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 방법과 학습 환경이 중요하므로[29],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허용정도 평균은 1.31±0.39점(4점 만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등[8]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30대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Ha와 Seo [24]의 연구결과 2.24점보다 낮았다. 한편 대학생의 폭력 허용정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이유는 최근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등의 사회적 이슈가 미디어를 통해 부각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데이트폭력 허용정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데이트폭력 허용정도는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허용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erner와 Nixon [5]의 연구결과 폭력행동을 증가시키는 것 중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있었고, 이것은 데이트 폭력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또한 폭력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임상과 지역사회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은 데이트폭력 피해를 받을 수 있거나 받게 된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간호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을 높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환경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자기조절적 판단을 통한 의사결정을 위한 개인적 성향의 사고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적이고 통합적 간호교육과 지식함양에 적극적 참여하여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공익광고나 홍보를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폭력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개설 또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자아존중감이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약 13.5%였으며, 성별이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폭력을 당하는 위험이 높고[12],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고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공격적 언행과 행동으로 폭력을 허용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다[6].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남성의 경우 데이트폭력의 허용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상자와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반복 연구를 통해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연구대상자의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성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약 13.5%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3개의 예측변수 중에서 성별과 자아존중감에 의해 13.5% 설명력을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주요 요인이 있을것으로 유추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간호하게 될 간호대학생이 데이트폭력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여 데이트폭력 허용정도를 낮출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을 본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다각화하여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에게 데이트폭력 허용정도를 측정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라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Kang YG, Park JP, Park WK, Lee CS.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date violence' and the issues of response.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6;30(1):175-216. https://doi.org/10.35147/knpsi.2016.30.1.175
2. Makepeace JM.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1981;30(1):97-102. https://doi.org/10.2307/584242
3. Kang H, Lee E. Predictive factors for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4;23(4):288-298.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4.288
4. Mun JH, Chung HJ.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of dating violence and violence tolerance. Family and Family Therapy. 2015;23(4):627-653. https://doi.org/10.21479/kaft.2015.23.4.627
5. Werner NE, Nixon CL. Normative beliefs and relational aggression: an investigation of the cognitive bases of adolescent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05;34(3):229-243. https://doi.org/10.1007/s10964-005-4306-3
6. Riggs DS, O'Leary KD.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96;11(4):519-540. https://doi.org/10.1177/088626096011004005
7. Nam HM.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3.
8. Lee HJ, Yoon MS, Kim YE, Lee SY.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tolerance and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8;8(3):115-125.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3.115
9. Jung GH, Kang MK.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tolera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2):33-42.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33
10.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1. Kim KS, Kim JR. An exploratory study on influence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omestic violence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2;7(3):79-98.
12. Jezl DR, Molider CE, Wright TL.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abuse in high school dating relationships: prevalence rates and self-esteem issue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Volume. 1996;13(1):69-87. https://doi.org/10.1007/BF01876596
13. Burke PJ, Stets JE, Pirog-Good MA. Gender identity, self-esteem, an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988;51(3):272-285. https://doi.org/10.2307/2786925
14. Kwag YK.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5):2178-2186.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15. Chang HS.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relationship style, and etiquette implementation in adolescence [master's thesis].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6.
16. Erikson EH.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1963.
17. Kang HJ, Park KH. The variables related to risk factor for victims and to maintenance of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2013;9(3):27-54.
18. Facione NC, Facione PA, Sanchez C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4;33(8):345-350. https://doi.org/10.3928/0148-4834-19941001-05
19. Yoon J.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issertation].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2004.
20. Im SE. Status of and policies on single-parent families in the U.K. and the U.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161:83-103.
21. Foo L, Margolin G.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95;10(4):351-377. https://doi.org/10.1007/BF02110711
22. J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974;11(1):107-130.
23. Guerney BG.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77.

24. Ha YJ, Seo MK. A study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014; 30(4):79-103.
25. Chung MS.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2):332-340.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332
26. Kim BM.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male university students'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6):525-533. https://doi.org/10.14400/JDC.2017.15.6.525
27. Jung SY, Lim CY, Lee MS. The effects of prejudice on dating viol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violence acceptability and relationship conflic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011;27(4):127-151.
28. Shin KA, Cho BH.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2;19(1):46-56. https://doi.org/10.7739/jkafn.2012.19.1.046
29. Cho HS.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 11(2):222-231.